

미리 보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 ‘한눈에 보는 도시건축역사’,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왔는가’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개막전(2025)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전시설계안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세종특별자치시에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 도시건축박물관* 개관전 전시 설계안을 공개하였다.

*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순차 개관 예정인 5개 박물관 중 하나로, 연면적 22,155㎡, 5개 층(지상3+지하2) 규모이며 총사업비 약 1,50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

□ 개막전 계획안은 지난 2년여간 도시건축계 전문가로 구성된 박물관 추진 위원회(한만희 위원장 외 9명), 전시기획·연구자 그룹(김성홍 전시감독) 그리고 민간업체(㈜시공테크)의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업으로 결실을 맺었다.

○ 개관전은 도시건축 연대기, 주거, 도시 인프라, 건축구법, 도시건축 인물 등 10개 소주제로 구성된다.

○ 인위적인 전시벽을 최소화하여 건축물 본래의 공간미를 살리고, 상설 전시와 더불어 기획전시 공간을 충실히 계획하여 도시건축박물관이 추구하는 생동하고 변화하는 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이밖에 박물관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AR 체험, 모형 연출, 몰입형 영상 등 최신 전시기법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을 전문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건축과 도시를 더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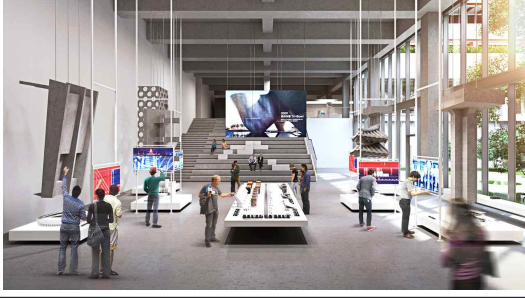
○ “전시설계안의 실제 구현과 소장품 확보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더욱 많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박물관을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	책임자	서기관	김용수 (044-201-4836)
		담당자	주무관	인병연 (044-201-3780)

참고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안

주제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3-2008
개관 특별전	- (생동하는 박물관) 박물관의 비전 '생동하는 박물관'을 나타내는 특별 조형물 전시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도시건축박물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박물관단지의 시작과 국립도시 건축박물관의 건립배경과 과정을 담은 건립기록전
상설전	- (한 눈에 보는 한국 도시건축 역사) 1953년부터 2008년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발전해 온 도시건축의 모습과 삶에 공간에 담긴 도시 건축의 담론을 살펴보는 전시 - (한국 도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대별 대표 도시의 등장과 각 도시의 변화상을 통해 전후 한국 도시의 변천과정을 소개하는 몰입형 영상 전시
기획전	-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왔는가?) 우리나라 주거 유형의 진화 과정을 아파트와 저층주거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대표 주거 모형과 수집된 유물들을 통해 생활상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는 전시 - (길 위, 길 아래) 도시의 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변천을 확인 하고 지상과 지하의 인프라 시설을 통해 도시 공간의 중요성과 삶의 미친 영향, 누적된 장소의 기억을 보여주는 전시 - (더 넓게, 더 높게) 도시 형성의 주재료인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과 철근 콘크리트가 만든 한국 모더니즘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소개 하는 전시 - (누가 도시건축계획을 처음 시작했는가?) 건축과 도시계획의 경계가 불명확했던 초기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의 작품 형성 과정과 대표작을 통해 한국 도시건축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전시
옥외전	- (마당 프로젝트) 박물관 마당에 국내외 건축가 대상 공모전을 진행하여 파빌리온 제작 및 설치(전시 후 소장) - (건축 파사드 시스템) 2~3층 외부 발코니에 국내외 제작 파사드 목업을 수집하여 전시
수장전	- (설계도구와 매체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설계 방식의 변화에 따른 설계도구와 도면, 모형을 중심으로 창작자의 표현 방법과 변천과정을 소개하는 아카이브형 전시 - (다크 아카이브) 수집된 박물관 자료를 보관·연구
체험교육	- (창작 스튜디오) 도시건축 강의, 워크숍 및 교육 프로그램 체험 공간 - (팝랩) 어린이, 학생, 가족단위의 관람객을 위한 도시건축 프로그램 특화 체험 공간

구분	대표 이미지	내용
(상설전시) 한눈에 보는 한국 도시건축 역사		전쟁 이후 폐허가 된 1953년부터 2008년까지 발전해 온 도시건축의 모습과 다양한 삶의 공간 자료를 아카이빙해 전시하는 체험형 미디어 프로그램
(상설전시) 한국 도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0개 주요 도시를 선정해 전후 한국 도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몰입형 영상으로 소개
(기획전시)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왔는가?		우리나라 주거 유형의 진화 과정을 아파트와 저층주거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대표 주거 모형과 수집된 유물들을 통해 주거 공간과 생활모습 등 우리 일상의 변화를 소개
(기획전시) 길 위, 길 아래		지상·지하의 다양한 도시·교통 인프라 시설을 통해 도시 공간의 중요성과 누적된 장소의 기억을 보여주는 대형 모형 전시
(기획전시) 더 넓게, 더 높게		우리나라 건축과 도시의 풍경을 형성하는 주재료인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과 철근콘크리트가 만든 한국 모더니즘 건축물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소개
(기획전시) 누가 도시건축을 처음 시작했는가?		건축과 도시계획의 경계가 불명확했던 초기 건축가, 도시계획가들의 작품 형성 과정과 대표작을 통해 한국 도시건축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소개하는 전시

구분	대표 이미지	내용
(옥외전시) 건축 파사드 시스템	 A 3D architectural rendering of a multi-story building facade system. It features a complex arrangement of balconies, overhangs, and various materials like wood, metal, and glass. The structure is shown in a landscaped outdoor environment with green lawns and a clear sky.	2~3층 외부 발코니에 국내외 주요 건축물 관련 파사드 Mock-up을 수집하여 전시
(체험교육) 창작스튜디오/팝 랩	 A 3D architectural rendering of the interior of a creative studio or pop lab. The space is bright and modern, with large windows on the right side. It includes round tables with blue chairs, long wooden desks with computers, and open shelving units. A person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working at a desk.	도시건축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 학생 및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춘 도시건축 전문 창작 공간

* 상기설계안은 실시설계와 제작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